

이 왕과 민나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민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며, 이런 뜻에서 그에게 왕은 민나의 경쟁자이자 “연적”⁵⁵⁾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왕의 실질적인 대비인물은 브루호잘 백작이다. 다만, 그가 “단지 출현하는 것만으로 매듭이 저절로 풀리(게 하)는”⁵⁶⁾ 하강신은 아니며, 이미 2막에서 예고되어 그 역할이 정해진 부차적 인물일 뿐이다. 그는 갈등을 푸는 주체는 아니지만, 두 젊은이가 애써 이루어낸 결합을 인정하고 축복하며, 그로써 두 나라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실천한다. 유스트가 ‘진실성’으로 프란치스카의 인정을 받듯이, 백작도 소령에게서 확인한 이 덕목을 당파성이나 애국심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 “진실한 사람은 어떤 제복을 입었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V 13, 702)는 그의 인본주의 철학은 타율적 ‘명예’에 대비되어 두 젊은이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 작센 귀족인 그가 ‘진실성’을 기준으로 프로이센군 장교에게 상속녀를 허락하고 그를 “내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은 렛싱이 신봉한 계몽주의 최고의 덕목인 ‘관용’을 실천하는 본보기로서, 출신이나 신분 또는 지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간 자체를 중시하려는 인본주의적·미래지향적 신조의 발현이다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난 텔하임은 “끔찍한 악몽”(V 12, 702)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악몽이란 민나를 잃을 뻔했다는 뜻이지만, 그의 뇌리에는 어음에 관한 오해와 억울한 명예상실도 스쳐갈 것이다. 그가 애초부터 당국의 조치에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좌절했는지는 작품에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시사하는 관헌당국의 자의적 판단과 이에 대한 그의 불신은 당시 프로이센의 사회정의가 열악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어쨌든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조치와 그로 인한 비극적 상황을 <혁명>하지 못하고 <모면>할 뿐이며, 그런 뜻에서 희극 『민나』는 ‘모면된 비극’이다. 다만, 그와 민나의 시점에서 모면이란 좌절에서 나온 수동적 <회피>보다는 실망과 배신감에서 나온 적극적 <거부>에 가깝다. 그는 진작부터 명예의 허구성을 깨닫고 프로이센을 떠나려 했으니, 명예회복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두 남녀는 어차피 비극을 극복했을 것이다. 그의 결백과 인간애를 주변인물들은 모두 확신하고 있고, 본인 자신의 장래 계획에서 드러나듯이 프로이센 이외에도 그를 반겨 맞이할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복권조치가 비극의 모면에 도움이 된 것은 따라서 그들보다는 왕에게 더 큰 다행이다. 그 까닭은, “나는 여기에서 내게 가해지는 부당한 일을 완전히 무시하겠소.”(V 5, 690)라는 텔하임의 결심에 이어

55) P. Ch. Giese: Ebd., S. 33

56) Ebd., S. 37. “[...] sein bloßes Erscheinen, bevor er etwas tun und sagen kann, bewirkt die Befreiung [...].”

대부분의 평자들은 백작의 출현으로 비로소 행복한 결말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백작의 역할에 비추어 민나의 계몽이 실패라는 식의 대비는 적합하지 않다

이건 시험에 불과했다구요 저에게 또 꿀탕을 먹지 않으려면 당신도 다시는 저를 꿀탕먹이지 마셔야 할걸요 (V 12 701)

라는 민나의 위협이 텔하임과 왕 사이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대비구조가 이 작품의 기본 구성원칙임에 비추어 민나(家族)-텔하임(家長)의 관계는 텔하임(臣民)-왕(國父)의 관계에도 상응하는 바⁵⁷⁾ 역사적으로 신민이 왕에게 먹이는 '꿀탕'이란 늘 이 작품에서처럼 단순한 결별로만 끝나지는 않았다 더구나 상호성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은—하인과 주인의 신의 부하와 상관의 우정과 더불어—불의한 압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결과 결사의 첫 걸음이 아닌가' 혁파가 아닌 거부와 도피의 자세는 작가 렛싱의 한계라기보다 18세기 독일의 역사적 한계였거니와,⁵⁸⁾ 그가 두 남녀를 통해 실현한 “기존 상황에 대한 극단적 거부”⁵⁹⁾는 적어도 당대 독일 문학에서는 획기적인 현상이었다

4. 선취된 결별

작품내재적 구조 분석에서 우리는 희극 『민나』의 중심 즐거리가 주인공의 점진적 인식 과정에 따라 진행되며 궁정·군사문화와 시민적 행복 사이의 대립이 희극적 갈등의 중심 축임을 확인했다. 작가가 도입부인 前史와 텔하임의 인식과정을 <사건수준의 점진적 상승>이라는 구성법칙에 따라 전개시킨 이유는 핵심 갈등의 시의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점진적·점층적인 사건 전개는 적어도 희극적 갈등의 진지성을 고려한 적합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웃기 어려운 대상을 보고 관객이 웃을 수 있으려면, 그 희극성이 점진적으로 반복 제시되어 관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종결부를 소용돌이처럼 급격한 반전과 점층적 상승 구조로 꾸민 작가의 의도를⁶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궁정·군사문화와 시민적 행복 사이의 대립, 특히 전직 고급장교의 입에서 나오는 불경스러운 말들의 반항적 여운을 작가는 심리 묘사와 요란한 종결부를 이용해 완화 내지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열이 엄격하던 계몽주의 시기에 작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룰 수 있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노예언어'를 계승 내지 고안해야 했다 렛싱 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우

57) Vgl. W. Wittkowski *Minna von Barnhelm* oder die verhandelten Hausvater, S. 55-61 S. 55: "Verhandelte Hausvater sind beide, der König allerdings ein schuldhaft selbstverhandelnder."

58) Vgl. Peter Pütz: *Die Leistung der Form*. S. 98 f, 194 f, J. Jacobs: *Prosa der Aufklärung*, S. 12-24, v. a. S. 23.

59) J. Schroder. Lessing. *Minna von Barnhelm*, a.a.O., S. 55. "Lösung und Versöhnung der Minna von Barnhelm beinhalten eine radikale Negation der bestehenden Verhältnisse."

화와 비유 형식에 애착을 보이고, 디드로를 위시한 프랑스 백과사전학파가 행간에 진실을 숨긴 것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텔하임에 관한 실책을 손수 바로잡는 것도 일종의 소망사항이거나 간접적인 정치풍자일 가능성이 높다.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군부 내에서 엘리트로 꼽히던 텔하임 소령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파멸의 위기에 몰리고, 왕의 친제가 개입한 덕에 극히 이례적으로 복권되고, 전쟁의 의미와 왕의 정책노선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복권 후에도 복직 제안을 거절한다는 일련의 과정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권력층에 대한 비판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칠년전쟁을 치루는 동안 극도로 재정 압박을 받은 프로이센은 왕명에 따라 금 함량을 속이는 화폐조작까지 하기에 이르러, 이 사실을 랫싱은 적어도 두 차례 『민나』와 『현자 나탄』에서 암시했다.⁶¹⁾ 그러나 텔하임의 면직과 복권은 열악한 현실을 꼬집는 반어적 풍자이거나, 사회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권력에는 등을 돌려도 좋다는 도피주의적 메시지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메링이 이 작품을 “프리드리히 시대의 통치에 대한 신랄한 정치풍자”⁶²⁾로 규정한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정치적 신조의 피력이 아니었다. 맹목과 국수주의적 편견은 오히려 이 회극에서 프로이센 군인의 기율과 프리드리히 대왕 예찬을 유추해낸 보수진영 학자들의 몫이어야 할 것 같다. ‘시와 진실’의 관계를 가리는 실증주의적 비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작품 내재적 구조 분석만으로도 『민나』에 담긴 작가의 비판 의지는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본고의 목표이자 성과라 하겠다.

주인공 민나가 시도하는 계몽의 내용은 칸트의 고전적 정의대로 상대방이 “자초한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理性을 활용할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랫싱은 부분적으로는 칸트가 20년 후에 선언할 계몽주의 이념보다 한 발 앞서 갔던 것으로 보인다. 칸트는 “계몽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성의 사적 사용과 공적인 사용을 구분, 공적인 분야에서는 “그대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이의를 제기해라. 그러나 복종하라!⁶³⁾고 요구했다. 이성에 의거한 비판은 탁상공론으로서서는 허용되나, 예컨대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대제와 같은 정치 영역에 공개적

60) Vgl. W. Wittkowski: *Minna von Barnhelm* oder die verhinderten Hausväter, S. 61 “Die Satire auf Friedrich den Großen bleibt hier ganz verhüllt. Im Lustspiel wechseln Enthüllen und Verhüllen.”

61) Vgl. Dieter Hildebrandt: *Gotthold Ephraim Lessing. Minna von Barnhelm*. Frankfurt a. M. u. Berlin 1969, S. 5-28, 특히 S. 18 f.; W. Wittkowski: Ebd., S. 61 f.

62) Franz Mehring: *Die Lessing-Legende. Eine Rettung*. Frankfurt a. M. 1974 (Stuttgart 1893), S. 322.

63) Immanuel Kant: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S. 445 [484] f.: “Rasonnirt, so viel ihr wollt, und woruber ihr wollt; aber gehorcht!” Vgl. Peter Putz: *Die Leistung der Form. Lessings Dramen*. Frankfurt a. M. 1986, S. 98.

으로 대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랫싱의 『민나』에서 왕의 가장 모범적인 총복인 여관주인이 사기꾼이자 경찰의 간교한 첩자로 활약한다는 것은 프로이센의 영광에 흠집을 내기에 족한 착상이다. 민나와 소령에게서도 “복종하라!”는 철학자의 요구를 앞지르는 진취적 해방의 의지가 엿보인다. 사회 인습과 정당한 인간적 욕구 사이의 대립은 1세기가 넘게 세월이 흐른 19세기 후반까지도 시민문학의 지배적인 주제로 활용되었고, 이 갈등이 특히 시민적 사실주의 작품들의 주조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극 『민나』에서 주제화되는 사회적 회극성은 그러니까 계몽주의 철학은 물론, 당대의 작품외적 현실에 비추어서도 현실을 앞서려는 세계관의 표현이자 비극을 거부하는 시민적 자각의 징표라 하겠다.

『민나』는 시대착오적 과거와의 “흔쾌한 결별”이라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회극론을 보완 내지 수정하는 의미도 지닌다.

역사는 철저해서, 낡은 현상을 무덤으로 끌고 갈 때에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세계사적인 현상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희극으로 나타난다. [...] 인류가 자신의 과거와 유쾌하게 결별 하도록 그런 것이다.⁶⁴⁾

텔하임이 보여주는 봉건사회 명예개념과의 결별에는 과거와의 결별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의 선취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 희극의 미래지향적 성향은 독일 사실주의 작가 폰타네(Theodor Fontane)의 시대소설은 물론, 정통 비극의 마지막 수호자 헵벨(Friedrich Hebbel)의 희곡들을 참조하면 더 분명해진다. 예컨대 『민나』와 『에피 브리스트 *Effi Briest*』에서 명예개념을 비교해보면,⁶⁵⁾ 전자가 시민문학의 자신감에 찬 개화기를, 후자가 그 우울한 말기를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18세기 절대체제 시대의 신민인 민나와 텔하임이 개인의 행복과 보편적 인간애를 존중하여 고식적인 명예개념을 거부하는 반면, 이러한 자세를 19세기 후반기 소설의 주인공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헵벨의 시민비극 『마리아 막달레나 *Maria Magdalena*』에서도 주인공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지고, 『아그네스 베르나우어 *Agnes Bernauer*』에서 시민의 딸 아그네스는 군주의 아들을 사랑한 탓으로 국익에 밀려 강물에 던져진다.

민나는 주로 주관적 명예개념의 허위성을 비판하지만, 이것이 사회 인습 및 제도와 얽혀 있으면서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좌우하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녀가 거부하는 명예관을 랫싱의 현실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허상과 실제의 갈등이 희극적으로 해소되더라도 웃음의 대상인 허상, 즉 거짓 의식이 현실 사회에서도 극복

64) Karl Marx: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MEW Bd. 1. Berlin 1956, S. 382.

65) 줄고 참조 Han-Soon Yim: Eine uneingelöste Vorwegnahme. Das Problem der Ehre in *Minna von Barnhelm* und *Effi Briest*. In: *Realismus, Expressionismus, Gegenwart*. KGG-Dokumentationen Bd. 1. Seoul 1993, S. 65-93.

된 것은 아니다. 벽지에서 낙원을 꾸미려는 텔하임의 소박한 꿈은 갈등의 실질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에서 배제되었던 하층 귀족 내지 시민계층의 도피주의⁶⁶⁾ 혹은 분리주의적⁶⁷⁾ 소망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특별히 시대적인 내용”을 읽은 괴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민나가 애인을 권면하여 비극적 상황을 거부하는 모습에는 작가 당대에 아직 실현되지 못했던 미래의 이상적 시민상이 선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루카치는 쉴러의 고전주의 미학에서 ‘優美 Anmut’ 개념을 원용, 희극 『민나』가 “우미의 경지에 이른 理性的 필연적 최종 승리에 관한 계몽 동화”⁶⁸⁾라고 정의했다 “동화”라는 개념은—루카치 자신은 이를 상론하지 않았으나—희극 『민나』의 역사적·사실주의적 의미를 축소하여 괴테와 메링의 견해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전쟁의 혼란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대도시 베를린과 텔하임이 꿈꾸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낙원 사이의 거리는 돈과 모략과 우정이 얽힌 상업도시 베니스로부터 꿈과 사랑의 동화 세계 벨몬트까지 만큼이나 멀 것이다.⁶⁹⁾ 달빛 가득한 포셔의 장원이 사랑과 낭만이 있는 동화 속의 낙원이라면, 희극 『민나』의 현실은 두 남녀의 낙원이 무대에서 암시로 끝나는 만큼만 계몽된, 다시 말해 사건현장이 베를린에 한정된 만큼만 당대 현실에 가까워진 ‘동화’일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목가적인 낙원이나 꿈의 세계는 독일 문학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고, 그런 만큼 한 세기 전에 초기 시민문학이 구상했던 이상향이 얼마나 먼 미래의 꿈이었던가를 실감케 해준다. 개인과 사회, 다양한 이념과 신조들이 관용의 힘으로 조화를 이루는 세계는 『현자 나탄』의 반지 비유에 대표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본질적으로는 21세기를 코앞에 둔 오늘날까지도 아직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선취된 미래가 아닌가! 귀엽고 당돌한 처녀 민나가 홍보하는 조화와 세계시민적 평등의 이상은 극중 극의 생동감과 협동하여 그녀를 오늘날까지도 독일 계몽주의 희극의 상징적 무대인물로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66) 텔하임과 같은 토지귀족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목가적인, 교양과 인간애를 추구하는 은둔생활은 계몽주의 문학 전반에 걸쳐 빈번히 이상과 전망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Vgl. Jürgen Jacobs: *Prosa der Aufklärung. Kommentar zu einer Epoche*. München 1976, S. 17 f.

67) Peter Weber: Lessings *Minna von Barnhelm*, a.a.O., S. 54: “Einerseits wird die Rolle des sezessionistischen Adels als Gegenspieler des Hofes ästhetisch bedeutsam [...]”

68) G. Lukács: *Minna von Barnhelm*, S. 442 f: “[...] es ist das Aufklärungsmärchen vom notwendigen Endsieg einer zur Anmut gewordenen Vernunft [...]”

69) 『베니스의 상인 *The Merchant of Venice*』과 『민나』의 유사점은 반지 모티브에서도 볼 수 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주제의 비유가 들어있는 것도 두 작품의 공통점이다. 기타 비교점들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기이하게도 독일어권의 주요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두 작품의 비교가 시도되거나 유사점이 언급된 적이 없다

참 고 문 헌

- Lessing, Gotthold Ephraim: Werke. In Zusammenarbeit mit Karl Eibl [...] hrsg. v. Herbert G. Göpfert. 8 Bde. Bd. 1-6. München 1970 ff.
- Lessing, Gotthold Ephraim: *Minna von Barnhelm*, hg. v Dieter Hildebrandt. Berlin 1969.
- Arntzen, Helmut: Die ernste Komodie. Das deutsche Lustspiel von Lessing bis Kleist. München 1968. Zit. nach Auszügen in: *Wesen und Formen des Komischen im Drama*. Hrsg. v. Reinhold Grimm und Klaus L. Berghahn. Darmstadt 1975, S. 419-440.
- Barner, Wilfried u.a. (Hrsg.): Lessing. Epoche — Werk — Wirkung. München 1975.
- Bauer, Gerhard und Sybille (Hrsg.): Gotthold Ephraim Lessing. Darmstadt 1968.
- Böckmann, Paul: Formgeschichte der deutschen Dichtung. Hamburg 1949.
- Catholy, Eckehard: Das deutsche Lustspiel Von der Aufklärung bis zur Romantik. Darmstadt 1982.
- Giese, Peter Christian: Gluck, Fortune und Happy Ending in Lessings *Minna von Barnhelm*. In: *Lessing Yearbook* 18 (1986), S 21-46.
- Goethe, Johann Wolfgang von: Dichtung und Wahrheit. Berliner Ausgabe Berlin und Weimar 41976.
- Gobel, Helmut. *Minna von Barnhelm oder Das Soldatengluck* (1767) Theater nach dem Siebenjährigen Krieg In: *Lessings Dramen. Interpretationen*. Stuttgart 1987
- Greiner, Bernhard: Die Komödie. Eine theatralische Sendung: Grundlagen und Interpretationen. Tübingen: Francke 1992.
- Grimminger, Rolf (Hrsg.): Deutsche Aufklärung bis zur Französischen Revolution 1680-1789. München 21984.
- Guthke, Karl S.: Gotthold Ephraim Lessing. 2. Aufl. Stuttgart 1973.
- Hass, Hans-Egon: Lessings *Minna von Barnhelm*. In: Hans Steffen (Hrsg.): *Das deutsche Lustspiel*. Erster Teil. Göttingen 1968, S. 27-47.
- Hein, Jürgen (Hrsg.): Gotthold Ephraim Lessing. *Minna von Barnhelm*. Dokumente und Erläuterungen. Stuttgart 1981.
- Hinck, Walter: Das deutsche Lustspiel des 17. und 18. Jahrhunderts und die italienische Komödie. Stuttgart 1965.
- Ders. (Hrsg.): *Die deutsche Komödie*. Düsseldorf 1977.
- Jacobs, Jürgen: *Lessing*. München und Zürich 1986.

- Ders.: Prosa der Aufklärung. Kommentar zu einer Epoche. München 1976.
- Ders.: Die Nöte des Hausvaters. Zum Bild der Familie im bürgerlichen Drama des 18. Jahrhunderts. In: WW 34 (1984), S. 343-357.
-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1784). In: Berlinische Monatsschrift IV (1984), S. 481-494. Zit. nach: Was ist Aufklärung? Beiträge aus der Berlinischen Monatsschrift. Ausgew. und eingel. von Norbert Hinske. 3. Auf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S. 452-465.
- Lessings Dramen. Interpretationen. Stuttgart 1987 (= UB Nr. 8411).
- Lukács, Georg: *Minna von Barnhelm*. In: Gotthold Ephraim Lessing, hg. v. Gerhard u. Sibylle Bauer. Darmstadt 1968. S. 427-447. (Zuerst in G. L.: Werke. Bd. 7. Deutsche Literatur in zwei Jahrhunderten. Neuwied 1964. S. 21-38).
- Mann, Otto: Lessing. *Minna von Barnhelm*. In: Das deutsche Drama. Vom Barock bis zur Gegenwart. Interpretationen I. Hrsg. v. Benno von Wiese. Düsseldorf 1958, S. 80-101.
- Mann, Otto und Straube-Mann, Rotraut: Lessing-Kommentar. Bd. 1. Zu den Dichtungen und ästhetischen Schriften. München 1971.
- Martini, Fritz: Riccaut — die Sprache und das Spiel in Lessings Lustspiel *Minna von Barnhelm*. In: Gotthold Ephraim Lessing, hg. v. G. und S. Bauer. Darmstadt 1968. S. 376-426. (Zuerst in: Formwandel. Festschrift für Paul Böckmann. Hamburg 1964. S. 193-235. Auch in: F. M.: Lustspiele und Lustspiel. Stuttgart 1974. S. 64-104).
- Michael, Wolfgang F.: Tellheim eine Lustspielfigur. In: DVjs 39 (1965) 2. S. 207-212.
- Michelsen, Peter: Die Verbergung der Kunst. Über die Exposition in Lessings *Minna von Barnhelm*. In: Jahrbuch der deutschen Schillergesellschaft 17 (1973) S. 192-252.
- Petsch, Robert: Die Kunst der Charakteristik in Lessings *Minna von Barnhelm*. In: Zeitschrift für deutschen Unterricht 26 (1912) S. 289-305.
- Piedmont, Ferdinand: *Minna von Barnhelm*, west-östlich. Zur Theaterrezeption der Lessingschen Komödie in der BRD und der DDR. In: Lessing Yearbook 13 (1981), S. 133-142.
- Pütz, Peter: Die Leistung der Form. Lessings Dramen. Frankfurt a. M. 1986.
- Rilla, Paul: Lessing und sein Zeitalter. München 1973.
- Schlafler, Heinz: Tragödie und Komödie. Ehre und Geld. Lessings *Minna von Barnhelm*. In: H. S.: Bürger als Held. Sozialgeschichtliche Auflösungen literarischer Widersprüche. Frankfurt a. M. 1981 (1973).

- Schröder, Jürgen: Das parabolische Geschehen der *Minna von Barnhelm*. In: DVjs 43 (1969) 2. S. 222-259.
- Ders.: Lessing. *Minna von Barnhelm*. In: Die deutsche Komödie, hg. v. Walter Hinck. Düsseldorf 1977, S. 49-65, 368-370.
- Schwan, Werner: Justs Streit mit dem Wirt. Zur Frage des Lustspielbeginns und der Exposition in Lessings *Minna von Barnhelm*. In: Jahrbuch der deutschen Schillergesellschaft 12 (1968) S. 170-193.
- Staiger, Emil: Die Kunst der Interpretation. Studien zu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München 1974.
- Steffen, Hans (Hrsg.): Das deutsche Lustspiel Erster Teil. Göttingen 1968.
- Steinmetz, Horst: *Minna von Barnhelm* oder die Schwierigkeit, ein Lustspiel zu verstehen. In: Wissen aus Erfahrungen. Hrsg. von A. v. Bormann. 1976. S. 135-153.
- Ders. (Hrsg.): Gotthold Ephraim Lessings *Minna von Barnhelm*. Dokumente zur Rezeptions- und Interpretationsgeschichte. Königstein/Ts.: Athenäum 1979.
- Weber, Peter: Lessings *Minna von Barnhelm*. Zur Interpretation und literarhistorischen Charakteristik des Werkes. In: Hans Günther Thalheim u. Ursula Wertheim (Hrsg.):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und Literaturtheorie. Berlin 1970. S. 10-57.
- Wittkowski, Wolfgang: *Minna von Barnhelm* oder die verhinderten Hausväter. In: Lessing Yearbook 19 (1987), S. 45-66.
- Yim, Han-Soon: Eine uneingelöste Vorwegnahme. Das Problem der Ehre in *Minna von Barnhelm* und *Effi Briest*. In: Realismus, Expressionismus, Gegenwart. KGG-Dokumentationen Bd. 1. Seoul 1993, S. 65-93.

《Zusammenfassung》

Vermiedene Tragödie, Vorwegnahme eines Abschieds — Lessings Lustspiel *Minna von Barnhelm* —

Han-Soon Yim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stellt den zweiten Teil meiner Werkanalyse dar, deren erster Teil unter der Überschrift >Lessings *Minna von Barnhelm* (I): Tellheims Erkenntnisprozeß< in der Zeitschrif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Germanistik (Dogilmunhag 47 (1991) S. 203-244) veröffentlicht wurde. Das Lustspiel ist in der Tat, wie der Untertitel heißt, ein Spiel um “das Soldatenglück” Tellheims, der sich aber erst von seinem Soldatentum, also von seiner starren, von außen bestimmten Ehrauffassung und seinem Dienstverhältnis zum König, lösen muß, um dann sein Liebesglück verwirklichen zu können. Der Major macht einen stufenweise fortschreitenden Erkenntnisprozeß durch, dessen dritter und wesentlicher Teil von Minna gleichsam als ein Aufklärungsversuch gesteuert wird. Die Hauptaufgabe meiner Arbeit besteht darin, diesen Prozeß der Aufklärung Tellheims über sich selbst, die sich in seiner Lösung vom Ehrbegriff manifestiert, als Hauptteil der Dramenhandlung zu bestimmen und auf der Grundlage dieser Analyse dann die alte Streitfrage aufzugreifen, ob Tellheim durch Minnas “Intrige” von seiner Fixierung auf den Ehrbegriff geheilt werde oder ob er allein dank der Rehabilitation durch den König heiraten könne. Anschließend wird eine Erklärung gesucht, welche soziale und literaturgeschichtliche Bedeutung seiner inneren Umwandlung beizumessen sei.

1) Es ist von einer einfachen Feststellung auszugehen, daß Minna mit resolutem Siegeswillen den Major aufsucht, “ihn seinem König wegzukapern” und daß sie bei aller Schwierigkeit am Ende ihr Ziel doch erreicht.

2) Die Aufklärung Tellheims findet im Rahmen der Minna/Tellheim-Handlung, die ihrerseits den Hauptteil der Gesamthandlung bildet und hauptsächlich aus drei Akten, dem 2., 4. und 5. Akt besteht. Das Zusammentreffen der Protagonisten findet dreimal statt, je einmal in jedem der drei Akte. Die Handlung läßt sich wiederum in zwei Vorgänge gliedern, die aufeinanderfolgend im Kontrast zueinander stehen: die Enthüllung der Vorgeschichte und die sogenannte “Ringintrige” mit dem darauf folgenden Komödienschluß.

3) Im ersten Vorgang (II/9, IV/6) wird der Konflikt eingeführt und fortschreitend gesteigert. Minna findet den Major in einem verzweifeltten Zustand vor. Er ist ehrlos und verarmt. Sie erinnert ihn an das Verlöbniß, aber der vermeintlich ehrlose ist gegen die Heirat, um Minna Schande zu ersparen. Mit der Enthüllung der Vorgeschichte stellt sich jedoch heraus, daß die Ehre für ihn weder "Stolz" noch "Gespenst" ist, sondern ein objektiv verbindlicher Verhaltenskodex (P. Michelsen), der seine gesellschaftliche Existenz bedingt. Als ein ehrlicher und verantwortungsbewußter Mann und 'Hausvater' kann er der Liebe nicht folgen, ohne sein inneres Ehrgefühl zu verletzen. Andererseits wird auch immer deutlicher, daß er sich innerlich längst von der außenbestimmten (Soldaten)ehre und damit auch vom König getrennt hat. Wenn er nicht wegen der so schimpflichen Bestechungsverdächtigungen verabschiedet worden wäre, hätte er selber den Abschied gefordert und wäre ohne weiteres in die Arme seiner Braut zurückgekehrt.

4) Der zweite Teil der Aufklärung, das von Minna eingeführte "Spiel im Spiel" (IV/6, V/1-12), verläuft unter einer vorgetäuschten Konstellation. Da der Major das Prinzip der Ehre nicht aufgibt, gibt sich Minna gleichfalls entehrt, um die "Gleichheit" als "das feste Band der Liebe" künstlich herzustellen und/aber um dann die Unhaltbarkeit dieser rein formalen Ethik nachzuweisen. Angesichts ihres vermeintlichen Unglücks fühlt sich Tellheim willig und stark, alles für sie zu unternehmen. Mitleid, bei Lessing die Signatur des besten Menschen, legt sein Herz frei und läßt die Stimme des Herzens sprechen. Er will um sie die ganze Welt vergessen, sein weiteres Leben mit ihr in einem anderen Land verbringen und sogar nichts mehr vom Dienst der "Großen" wissen. Gezeigt wird in diesem Spiel Minnas vor allem, wie die Entscheidung Tellheims, sich von Preußen und seinem König loszusagen, stufenweise aufgebaut und gefestigt wird. Seine Absage an die "Dienste der Großen", die ihre Diener mit "Erniedrigung" belohnen, kulminiert in dem Augenblick, als er das königliche Handschreiben zerreißen will.

5) Zur Debatte steht offenbar nicht, ob oder wie Tellheim von seinem tragikomischen Ehre-Denken befreit wird, sondern vielmehr, was er unternimmt und unternehmen muß, um die von den "Großen" sozusagen oktroyierte Tragödie zu vermeiden. Der Konflikt zwischen den Ansprüchen der Ehre und solchen der Liebe ist dadurch gekennzeichnet, daß er weder von den Protagonisten verursacht wurde noch durch sie gelöst werden kann. Gerade deshalb muß sich der Major von der fremdbestimmten Ehre und von deren Verwalter, Preußen, lossagen, wenn "der Trieb der Selbsterhaltung erwacht", wenn er "etwas Kostbares zu erhalten hat". Ganz abwegig ist aus dieser Sicht die Behauptung, daß

der Aufklärungsdiskurs zu keinem guten Ende führen könne und daß das gute Ende nur durch das königliche Handschreiben erfolge. Der Kontrast von Konflikt und Konfliktlösung, die “Diskrepanz zwischen Spielhandlung, die auf die Lösung des Konflikts abzielt, und der tatsächlich stattfindenden Lösung, die mit dieser Spielhandlung in keinerlei Zusammenhang steht” (Steinmetz), sollte auch nicht übertrieben werden, zumal die Komik dieser Diskrepanz nicht im Mittelpunkt der Komödienhandlung steht. Lessing demonstriert, wie die Figuren unter sich verändernden labilen Umständen agieren und reagieren, wie sie einen Erkenntnis- und Aufklärungsprozeß durchmachen und hierdurch eine zwar indirekte, aber doch verdiente Lösung herbeiführen. Aus dieser Sicht ist das Lustspiel eine bewußt “vermiedene Tragödie” oder eher eine *abgelehnte* Tragödie. Dieser “heitere Abschied” war allerdings verfrüht: Im Hinblick auf die späteren literarischen Gestaltungen des Ehrbegriffs erscheint die Absage als eine Vorwegnahme, die nicht einmal im Zeitalter des Wilhelminismus, dessen Herrscherhaus sich als Erben des Friedrich des Großen verstand, realisiert sein sollte.